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國際學碩士 學位論文

50년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통해 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의 관계 연구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國際大學院

國際學 韓國學專攻

VAVRINCOVA ZUZANA

50년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통해 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의 관계 연구

지도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바브린소바 주자나

바브린소바 주자나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위원장 은기수 (인)

부위원장 신성호 (인)

위원 박태균 (인)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sis Acceptance Certificate

The undersigned, appointed by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ave examined a thesis entitled

**Czechoslovakia-North Korean Relationship in the 1950s
Seen through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Documents in Czech Republic**

Presented by VAVRINCOVA ZUZANA

Candidate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hereby
certify that it is worthy of acceptance.

Signature _____

Committee Chair Eun, Ki Soo

Signature _____

Committee Member Sheen, Seong Ho

Signature _____

Committee Member Park, Tae Gyun

Date: August, 2012

<국문 초록>

50년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통해 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의 관계 연구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이미 194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국가간의 협력은 북한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비군사적 원조에 집중되었으며 건설, 교육, 의료지원 및 기타 다양한 분야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그 원조는 비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에 까지 이르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맺으며 중립국 감독위원회 (NNSC)의 네 회원 중 하나가 되었다. 평화적 중립을 유지하려는 스웨덴 및 스위스와 달리, 체코슬로바키아는 미국제국주의와의 전투를 위해서 위원회에 가입했다. NNSC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의 '강경노선'의 강력한 지원을 담당할 것을 표명했다. 중립을 유지하려는 NNSC의 주요 목표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북한에만 지원을 했다는 데 있었다. 정전협정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비난하는 첫째 활동 국가는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이었다. 그러나 상대국들도 자신들의 정책을 촉진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 즉 정전 혹은 소위 '불안한 평화'를 유지할 때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북한을 위해 군사적, 비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강경노선을 공유하는 등 두 나라간의 관계는 성실한 동지로서의 관계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 우호적인 관계는 표면적인 것이었으며 오해와 대립 또한 숨어 있었다. 북한이 체코슬로바키아에게 자신의 강경 노선과 '북경 노선'을 요구할 때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도 자신의 권한을 여전히 과시하려고 했으며 소련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전쟁시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통해 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서고 문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더욱 자세한 NNSC 를 통해 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의 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주요어: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사찰 팀, 체코슬로바키아, 북한, 정전협정, 정전협정 위반.

학번: 2009-24101

목차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기존연구의 검토.....	5
1.3	연구자료 및 방법.....	9
제 2 장	체코슬로바키아 육군의 특수 팀의 준비.....	12
2.1	첫 걸음 - 판문점 회담.....	12
2.2	특수 팀의 해산 및 새로운 도약.....	17
제 3 장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초창기.....	21
3.1	사찰 팀 활동의 시작.....	21
3.1.1	북경회의 - 전술의 변화.....	30
3.1.2	남한 내의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단에 대한 반대 시위.....	32
3.1.3	사찰 활동의 감축 및 사찰 팀의 종말.....	38
3.2	협력의 둘째 단계 - 평온의 기간?.....	44
제 4 장	60년대 - 관계 긴장.....	54
4.1	60년대의 감독위원회 내의 상황.....	54
4.2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 - 성실 혹은 위선?.....	62
제 5 장	50년대~60년대 북한을 위한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 원조.....	71
제 6 장	결론.....	73
	참고문헌.....	78
	Abstract.....	84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0년대 말,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수립했고, 이는 북한이 외교적 관계를 받아들인 첫 번째 나라들 중 한 국가가 되는 것이었다.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과의 영사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1951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 북한대사관이 들어왔으며, 1954년부터는 북한에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대사 업무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국 전쟁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자발적인 모금과 경제원조 (칫솔과 구두에서부터 기계와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물품)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 외의 많은 인적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지원이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포로 송환을 다룬 분과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목적은 평화를 지속시키는 것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은 수십 년간 서로간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주석 김일성은 체코슬로바키아를 두 차례 방문(1956, 1984) 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두 대통령- 안토닌 노보트니 (Antonín Novotný) (1959), 구스타프 후사크 (Gustáv Husák) (1988)가 북한을 방문했다.

1989 년 11 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혁명'이 일어났다. 이 벨벳혁명은 공산주의에 저항했던 혁명으로 유명하며 1989 년 12 월까지 지속되었다. 1989 년 11 월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는 냉랭해지기 시작했다. 1993 년 북한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중립국감독위원 자격의 계승을 거부하여 체코슬로바키아의 중립국감독위원 자격의 효력을 잃게 되었다. 1993 년 4 월 10 일자로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을 떠나게 되었다. 1999 년부터 2002 년까지 체코슬로바키아¹에서의 북한의 외교는 대리공사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2 년 6 월 북한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활동을 베를린으로 옮긴다는 것을 통지했다. 1994 년 체코공화국은 평양 주재의 대사관을 폐관시켰으며, 대사업무활동을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이관시켰다. 하지만 2001 년부터는 체코공화국 대사관이 북한에 다시 들어서면서 북한에서 새로이 대사 업무를 시행했다. 2011 년 체코공화국과

¹ 1993 년 1 월부터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분리되었으며, 따라서 당시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아닌 체코공화국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교부간의 2011-2013 년 협력 액션 플랜의 조약에 조인했다. 교육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또한 시행되었다. 체코 정부는 체코 대학에서 조선 학생들을 위한 두 개의 대학장학금과 체코 언어 교육원의 두 개의 장학금을 부여했다. 북한 또한 체코 학생들 위한 언어 교육 장학금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획기적인 역사의 부분은) 이미 언급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내의 체코슬로바키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설립은 1950 년 6 월 25 일 시작된 남한과 북한의 전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른바 '6·25'전쟁으로 불리는 역사적 사건은 1953 년 7 월 27 일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후 조선인민군, 중국인민군 및 유엔의 사령관들은 정전협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군사정전위원회 (MAC) 및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웨덴과 스위스를 대표했던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주축으로 수립이 되었다. 처음에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당이 소련을 중립국 감독위원회의원으로 추천했으나, 추후에 지명에서 철회하고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회원 후보로 지명했다.²

² "Čechoslováci v Koreji, Kronika čs. delegace v DKNS" (한국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기록), 2 쪽. <이하 'Čechoslováci v Koreji' (한국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줄임.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도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는 인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포로 송환을 다룬 위원회였다. 체코슬로바키아도 포로 송환을 다룬 분과위원회원국들 중 한 국가였다.

현재까지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전쟁시기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통해 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위원회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활동에 관한 여러 문서가 있으나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설명되어있으며, 중립국 감독위원이었던 스위스와 스웨덴과는 분명히 달랐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중립국 감독위원으로서의 목적과 사명을 깊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과 그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던 국가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더욱 상세한 연구를 하며 이 관계의 실제 상황을 밝히고자 한다.

1.2 기존연구의 검토

현재까지도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수많은 신문과 잡지, 책들에서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관계에 대한 기사들과 자료들을 찾을 수 있지만, 이들은 피상적인 것만 다를 뿐, 관계에 따른 문제점이나, 새로운 관점과 의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몇몇의 기사들과 문구들은 객관적이지조차 못했다.

체코공화국 출신으로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는 두 명이 있다. 한 명은 파벨 야네체크 (Pavel Janeček)로 한국전쟁시기의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다룬 한편의 논문과 한 개의 기사를 작성했다. 또 다른 학자인 블라디미르 벨라트 (Vladimír Pilát)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통해 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유일한 체코 연구자이다. 블라디미르 벨라트는 한국전쟁시기의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와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의 체코슬로바키아의 활동을 다룬 몇 개의 기사를 작성했다. 슬로바키아공화국 출신의 연구자는 한 명 밖에 없는데, 슬로바키아 역사학자인 요제프 코레니 (Jozef Korený)이다. 두 연구자 모두 오직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초창기만을 연구했을 뿐이다. 벨라트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활동이 초기의 계획과는 다른 중립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에,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의문과 그에 대한 연구를 했다. 저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은 공동의 적에 대해 대항하는 것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게다가 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소위 특수 팀은 평화 역할이 아니라 전투 역할을 담당할 사실을 지적했다. 벨라트에 따르면 체코슬로바키아는 때때로 같은 중립국 감독위원이었던 스웨덴과 스위스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몇몇의 정보를 비밀에 부치었다. 사실 스웨덴과 스위스도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 모든 정보를 공유했는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한국전쟁 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 당시, 앞서 언급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의료진 활동 또한 중요했다. 벨라트는 두 개의 장으로 구분 되는 기사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체코슬로바키아 의료진 활동에 대해 분석했으며 그의 의견을 주장했다. 저자는 이러한 의료 활동이 인도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 중요했던 정치와 군사적 목적으로 인했음을 이야기 했다. 또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준비 때와 마찬가지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의료진과 북한이 공유하는 목적을 지닌 모든 프로젝트는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국의 연구 가운데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통해 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자는 없다. 이 관계를 언급하는 저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연구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밖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와 가장 관련된 연구는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 가브리엘 연손 (Gabriel Jonsson)의 연구이다.³ 연손은 한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NNSC 및 MAC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위원회의 초기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위원회 활동을 분석하며 그 작업이 내부의 분할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강조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의 초창기부터 계속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서로의 비난이 이어졌고, 재무장 문제로 인해 타협에 도달하지 못했다. 즉, 연손은 NNSC가 '불가능한 임무'가 되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위원회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는 데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모든 대표단의 입장을 분석하며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 및 기타 NNSC의 대표단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스웨덴 문서에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대표단에 대한 정보를 찾았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문서를 따로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연손 (Jonsson)의 연구는 매우 상세하지만 체코

³ Jonsson, Gabriel. *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 : The Role of Commissions*. Seoul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9.

문서에서만 찾을 수 있는, NNSC 내의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 기사에서 다른 관련된 자료로는 60 년 대 MAC 상황을 묘사하는 2003 년에 출판된 기사가 있다.⁴ 김보영은 위원회의 활동에 체코슬로바키아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MAC와 NNSC의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여를 하고 있다. 저자는 1960 년대 MAC 개최 상황과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문제의 배경을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재규, 고병출 및 광태환이 주목을 하고 있다.⁵ 그들은 이 관계의 배경과 발전을 설명하며 다른 동유럽 국가들 및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통해 북한과 동유럽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1968 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소련 침공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설명한다. 다른 책이나 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키요사키의 책⁶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The Swiss Delegation to the NNSC 1953-1993 Panmunjom

⁴ 김보영, 2003, 「1960 년대 군사정전위원회와 정전체제」, 『역사와 현실』, 제 50 집.

⁵ Park, Jae Kyu – Koh, Byung Chuk – Kwak, Tae Hwan. 1987.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 New Perspectives*. Seoul : Kyungnam University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⁶ Kiyosaki, Wayne S. 1976.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 The Politics of Accommodation, 1945-1975*. New York : Praeger.

*Korea*라는 책도 위원회 내의 체코슬로바키아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지만 매우 기본적인 지식 밖에 얻을 수 없다.

NNSC 내의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유럽 학계에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국 학계에서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서고 문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더욱 자세한 NNSC 를 통해 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의 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1.3 연구자료 및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시기의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와 중립국감독위원으로서의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다른 연구성과를 이용하기 보다는 체코 서고에 있는 자료들을 직접 찾아 연구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는 자료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흥미로운 자료들은 체코공화국 외교부의 서고와 군역사서고에서 찾았다. 슬로바키아의 외교부의 서고와 군역사서고도 이용했지만 본 논문과의

관련된 문서가 거의 없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문서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인 프라하에 보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0 년과 60 년대의 새롭게 발견된 자료들을 체코 군역사 서고에서 찾게 되었다. 70 년대 및 그 이후의 문서들은 아직도 기밀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다. 흥미롭게도 1968 년의 문서들은 접근 할 수 있는 문서의 목록에는 있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푸에블로호사건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소련 침공에 대한 양국의 반응과 관련된 문서들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들은 둘 다 앞서 언급한 책 ⁷에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외교부의 서고에서 자료를 찾는 작업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지만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외교부의 서고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기록과 대표단의 위원들의 일기장에 접근을 허용했다. 대표단 위원들의 일기장은 체코 기자 알렉세이 쓰와트베르크 (Alexej Švamberg)에 의해 정리되어 외교부 서고에 보관되었다. 쓰와트베르크의 할아버지는 1954 년에 대표단의 위원으로 근무를 했다. 이에 본인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기장 몇 개를 수집하고 예전의 위원회의 회원들과 함께 인터뷰도 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위에 언급한 대표단의 기록이 만들어졌다.

⁷ Jonsson, Gabriel (2009) 및 Park, Jae Kyu – Koh, Byung Chul – Kwak, Tae Hwan (1987).

기록과 일기장들은 50년대 전반, 즉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활동의 초창기만을 포함할 뿐이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Rudé právo* (붉은 권리)라는 신문에 있었지만 60년대까지 이와 관련된 기사는 한 편만 있을 뿐이었다. 70년대 및 그 이후의 기사들은 또한 피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다루고 있을 뿐, NNSC와 그 활동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깊이가 없는 내용의 기사들이었다. 본 논문은 연구는 시기를 50년 및 60년 대로 제한하여 많은 유용하고 흥미로운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제 2 장

체코슬로바키아 육군의 특수 팀의 준비

2.1 첫걸음 - 판문점 회담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설립 계획은 정전협정서의 조인 때가 아닌 이미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된 수많은 중단된 협상 당시 수립되었음을 언급할 필요 있다.⁸ 그 당시부터 설립 계획에 대한 협정은 거의 달성되었지만 실행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문제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51년 11월 27일 전쟁 중의 양측들은 모두 군사 분계선에 대해 동의했으며, 그리고 30일간 Little Armistice이 시작되었다. 1952년 봄에 체코슬로바키아 군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원 준비를 위해서 북한-중국-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회담에 착수했다. 그와 동시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중립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체코슬로바키아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 충돌에 관여한 당사자가 아니라 그 두 나라의 동지라는 사실을 이 회담을 통해 밝혔다. 이러한 중립이란 개념은 유엔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일으켰다.

⁸ Pilát, Vladimír, 1998, 「Příprava takzvané Zvláštní skupiny čs. Armády k činnosti na linii příměří v Koreji」, 『Historie a vojenství』, (6), 59 쪽.

서방 자본주의 나라들과 독립된 자치 단체의 창립은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이런 경향은 1952 년 4 월 22 일에 프라하에서 개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의 비서와의 회담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당시 특수 팀의 사령관 프란티셰크 부래스 (František Bureš)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대사관의 비서'S'는 1951 년에 아직도 한국 전선에 있었는데 38 선의 상황을 잘 안다. S에 따르면 미국인들을 정전협정 시기에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나라의 특수 팀은 평화가 장악한 나라에 가지 않지만 중요한 전투 역할을 전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미국인들은 북한 지역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정책을 실시했으며 북한 주민들은 그에 따른 압력에 시달리게 되었다. 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중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지역 물적 자원에 타격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⁹

이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38 선 내의 활동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명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전투적인 역할을 하는 활동이었다. 사령부 부서장 테사라 (Tesala)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 군은 소련 내의 최초의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을 창설한

⁹ "Zpráva o činnosti a přípravách zvláštní skupiny". Příl. 1 (특수 팀의 활동 및 준비에 관한 보고서, 부록 1).

후 체코슬로바키아 육군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큰 역할을 했다.¹⁰ 이런 관점은 1952년 5월 만든 특수군의 군비, 장비를 더불어 주로 인력에 반영되었다. 이 군은 육군 38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장교 138명 (여성 2명 포함), 부장교 6명 (여성 4명 포함) 및 기본 병역사병 236명이 있었다.¹¹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체코슬로바키아 인민의 군대와 외무부의 회원들의 선택을 승인했고 1952년 4월 25일에는 특수군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1952년 5월 25일에는 북한에서 평양 주재의 체코슬로바키아의 대리 공사에 전송한 중립국감독위원회 조직의 제안을 기반으로 형성과 훈련을 했다. 이 제안에 따라 20개의 통제 그룹 중 중국과 북한군은 신의주, 청진, 흥남, 만포를 통제했다. '한국 입구' (항구와 공항) 내의 다섯 그룹 및 유엔이 관리한 '입구' (인천, 대구, 부산, 강릉, 군산) 내의 다섯 그룹이 형성될 예정이었다. 나머지 중립국 감독 기동 그룹들은 10개 백업 그룹으로 편성되어 근무를 했으며, 그 중 다섯 개의 그룹은 중립국 감독위원회로 본부 단장의 요청으로 언제든지 파병될 수 있었다.¹² 감독위원회 내의 대표단의 활동을 위한 준비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를 크게 흥분시켰다.

¹⁰ "Rozkaz č. 20 o vedení denníku činnosti Kontrolní skupiny". (사찰 팀의 활동 일기장의 유지 방법에 대한 명령 20호).

¹¹ "Zpráva o činnosti a přípravách zvláštní skupiny". (특수 팀의 활동 및 준비에 관한 보고서), 1쪽.

¹² Pilát, 1998, 61쪽.

이와 같은 흥분의 원인으로 엄격하고 은밀한 결정을 하여 '액션 B'¹³ 나 '액션 9999'가 생겼다. 폴란드와 우호 관계도 주목했다. '액션'의 높은 비밀의 이유는 대표단의 준비 시작에 대한 공개적인 관심을 끌게 하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1952년 4월 말에는 중앙 육군관에 4개의 실을 마련하고 군인과 민간인들 몇 명을 실 안으로 이동시켰다. 전체의 액션은 부레스 (Bureš)이 맡았다.¹⁴ 1952년 5월 1일에 코모르니 흐라데크 (Komorní Hrádek)에서 선택된 300명으로 시작했으며 그 중 운전사, 전화 교환수, 요리사와 경호원, 외교관과 통역사들이 있었다. 코모르니 흐라데크에서 모인 한 병사들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중요한 임무를 하기 위해 당신을 선택했지만 무슨 임무인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거나 임무의 목적은 무엇인지도 추측해 보지도 마시오.'¹⁵

순수한 육군 환경에는 '신비로운' 민간인들이 병사들로 합류했다. 외교부에서 보냈던 민간인들은 은밀한 액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지만 이 일은 비밀을 요하여 병사들에게 털어놓으면 안

¹³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체코슬로바키아의 특수 팀의 사령관 프란티셰크 부레스 (František Bureš)에 의해 명명.

¹⁴ "Čechoslováci v Koreji" (한국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3 쪽.

¹⁵ 위의 자료, 4 쪽.

되었다. 더 나아가 외교부에서 보냈더라도 한국에서 대표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면 안됐다. 그러나 곧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다. 특수 팀이 준비되었을 때 오해한 것이 많았다. 외교부의 직원들은 준비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그들의 외교 임무는 행진, 경례와 사격에 의존했고 몇 일 안에 민간인에서 훌륭한 군인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기록에 따르면 팀의 준비는 판문점 협상의 속도보다 더 나았다. 판문점 협상은 포로 송환 문제 때문에 연장되었다. 회담이 몇 주간 연기되어 희망을 점차 잃기 시작했다. 희망을 잃을수록 육군 병사의 수 또한 감소하여 6 월에는 통역사들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통역사들의 능력은 통역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했다. 즉 행진하고 사격은 잘 했지만 통역은 못했다. 그 결과 통역사들도 드디어 해산되었다. 판문점 회담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체코와 공산국의 입장에서 볼 때 회담이 중단된 이유는 미국인들이 포로의 자발적인 송환을 원했지만 실상은 강제적인 송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여러 국가로 하여금 자발적인 송환처럼 생각되도록 했다. 따라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사람들은 사실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¹⁶

¹⁶ 위의 자료, 6 쪽.

2.2 특수 팀의 해산 및 새로운 도약

1953년 봄에는 북한과 중국이 판문점 회담에 관심을 다시 보였다. 이 태도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마지막 공산주의 공격의 실패, 중국과 북한의 경제의 비참한 영향, 스탈린의 사망들이¹⁷ 이런 요소들에 포함될 수 있었으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타협도 그렇다. 미국인들은 억류하고 싶은 포로들을 직접적으로 송환을 하지 않고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군과 협상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했으며 귀국하거나 상대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었다. 상대국들도 마찬가지였다. 1953년 봄에 이 양쪽의 타협 소식이 온 세계에 전해지자마자 루지네(Ruzyně)에서 특수 팀의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다. 1953년 4월 25일까지 시급하게 준비를 달성, 설비 장비 완료와 훈련 계획의 준비에 집중되었다.¹⁸ 예비 과정은 처음처럼 은밀한 액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널리 알려졌다. 지휘관과 그들의 후임자들은 정전협정서를 열심히 읽어 보고, 국제법, 외교와 한국의 역사와 지리,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공부했고 심지어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회원나라들의 사찰 팀과 대표들간 회의를 했다. 병사의 조직도 변화했으며 항구의 통제를 위한 20 그룹으로 상주 10 그룹과 기동 10

¹⁷ 1953년 3월 5일.

¹⁸ Pilát, 1998, 64 쪽.

그룹으로 나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특수 팀은 또한 공산당 하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감독위원회 내의 활동의 준비를 위해 구축한 캠프에서 적어도 사흘 동안 시간을 함께 보냈다.¹⁹

1953 년 4 월 3 일에는 포병 본부는 특수 팀을 위한 총포를 요청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들과 달리 총을 들고 한국으로 갈 계획이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 한대로 한국 내의 체코슬로바키아의 활동은 평화 유지의 사명이 아니라 전투를 위한 사명이었다.²⁰

이러한 준비를 둘러싸고 감독위원회 나라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국제 정치 문맥에서는 폴란드와 중국, 북한 '동지들'과 좋은 협력의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처럼 폴란드도 거대한 그룹을 준비하고 있었다.²¹ 관문점 회담의 재개 직후 다른 일을 포함해서 폴란드와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에 이르게 되었다. 이미 4 월 말에 체코슬로바키아 팀의 몇몇 임원들과 팀의 사령관 프란티셰크 부레스 (František Bureš)가 이끄는 대표단은 폴란드를 방문했고 정보 교환과 감독 위원회의 준비에 대해서 폴란드 동지들과 협상을 했다.

¹⁹ "Čechoslováci v Koreji" (한국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8 쪽.

²⁰ Korený, Jozef, 1998, 「Zvláštna skupina ČSĽA v Kórei」, 『Apológia』, 6 (3), 24 쪽.

²¹ AMZV (체코공화국의 외교부의 서고), 7. odbor, Korea 1945-1954, krabice 2, č.j. 123.216/53.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은 폴란드와의 관계와는 달리 스웨덴과 스위스에 대해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과 부정직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사태는 몇 가지의 예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1953년 4월과 5월에는 스웨덴과 스위스가 자신의 프라하에 있는 자국의 대리 공사 통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특수 팀의 군비, 장비와 준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지만 체코슬로바키아가 응답을 회피했고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정부는 특수 팀의 준비에 대한 정보를 스위스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스웨덴 대리 공사에게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 '알아보고 나서 응답을 나중에 하겠다'는 말을 했다. 북한에 가기 전 한 달 동안 이런 회피적인 응답을 계속 했다.²²

1953년 6월 12일에는 첫째 그룹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북한으로 출발했다. 북한으로 출발에 대해서 확실했지만 고통스러운 환멸을 느꼈다. 같은 날에 체코공화국 북경 주재의 대사 프란티셰크 코므잘라(František Komzala)는 중국의 요청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특수 팀의 회원수가 385명에서 250명으로 축소를 해야 한다고 발표를 하기 때문이었다. 급격한 축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새로운 외교 협상에 이르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런 축소 요청이 팀의 조직을 복잡하게

²² AMZV (체코공화국의 외교부의 서고), 7. odbor, Korea 1945-1954, krabice 2, č.j. 119.308/53.

만들 것이고 인력과 자재의 충분한 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및 유엔 사령부 부대와의 합의에 따라 파견 단의 구성원의 수는 제한되지 않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인원이 300 명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 중국의 주장 중의 하나는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의 인원도 적다는 것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 외교부의 외교관 시모비치 (Šimovič)는 스웨덴이나 스위스와는 달리 체코슬로바키아의 특수 팀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가들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높은 능력 덕분에 독립될 수 있지만, 오히려 체코슬로바키아의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의 부족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시모비치는 특수 팀의 구성원의 능력이 낮고 미국과의 협력을 기꺼이 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북경은 몇 가지의 논의 후 특수 팀의 수를 250 명에서 300 명으로 증가할 것을 승인했다. 300 명으로 구성된, NNSC 의 활동을 위한 체코슬로바키아 특수 팀은 1953 년 7 월 22 일에 프라하에서 출발하여 러시아, 중국, 북한 전역의 긴 여행 후, 드디어 8 월 13 일에 개성에 도착했다.

제 3 장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초창기

3.1 사찰 팀 활동의 시작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1953년 8월 1일에 작업을 시작했다.²³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상설 그룹(북쪽 - 5 그룹, 남쪽 - 5 그룹)과 10기동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지만 사찰 팀의 수는 점차 감소하여, 예컨대 1955년 9월에는 6개의 상설 그룹과 6개의 기동 그룹으로만 나뉘게 되었다. 본부는 개성에 위치했고 대표단의 나머지와 이동 그룹이 판문점 대량 캠프에 배치되었다. 처음에는 그룹 자체의 차량, 기사와 요리사가 있었는데 직원은 점차적으로 북한 동지들에게서 공급을 받았다. 정전협정서는 주로 정전협정서 제 13항(ㄷ)목과 13항(ㄹ)목의 중요한 근거였다.

제 13항(ㄷ)목에 따르면 '...한국에 군사 인원의 보강의 도입을 금지했으나 한국 직무 투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에 의한 단위 또는 직원의 교체가 허용되었다...'

²³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대표들의 첫 대면.

제 13(ㄷ)항목은 한국으로 강화 전투 항공기, 장갑차, 무기 및 탄약의 한국으로 도입을 금지했지만 전투 항공기, 장갑차, 무기와 탄약 등은 정전 기간 동안 파괴, 손상, 마모 될 경우 대체될 수 있었다.²⁴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감독위원회의 초기 활동은 스웨덴과 스위스를 방해하는 것이었고 두 국가를 모두 다 위험한 상대자로 고려했다. 이것은 북-중 동지들과의 협력에서 유래했으며 긴밀한 협력을 하여 비밀 협상을 개최했다. 비록 체코슬로바키아가 스웨덴 및 스위스 사찰 팀의 회원들과의 협력과 합의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러 스포츠 경기에 함께 참석했다.²⁵

1953 년 9 월 13 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들이 중국인민지원군의 보호하에 한국전쟁 전투 지역의 답사에 초대되었다. 이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동정과 우호관계는 한국의 체류 지식에 관한 보고에 잘 나타나있다: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은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 중국인과 조선인들은 우리 나라와 북한을 위한 우리의 원조에 대해서 지식이

²⁴ 박태균, 2003,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42 쪽.

²⁵ Smetánka, Tomáš, 2010, 「Neutrální Československo : Čtyřicet let v komisi pro dohled nad příměřím v Koreji」, 『Mezinárodní politika』, 34 (6), 10-11 쪽.

풍부하다. 중국과 북한 군인들은 좋은 인상을 남겼고, 결연한 태도가 있는 그들의 평화 캠프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²⁶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대한 초창기 기록에서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와 북한과의 관계의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본관 앞에 있던 계단에서 폴란드와 북한 동지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불렀다. 우리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²⁷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들에 따르면 사찰 팀 활동의 시작부터 미국인들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없애고 싶어 비난을 했고, 미국의 숨겨진 지지자로 스웨덴과 스위스가 있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문제는 사찰 팀의 파견날짜를 결정할 때 나타났다. 서양 대표들은 미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찰 팀의 파견을 미루고자, 기존 회원들과 회의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 팀은 1953년 8월 12일자로 첫 번째 사찰 팀을 남한과 북한 주재의 항구 10 곳에 파견했다. 이 사찰 팀은 8월 19일 오전 8시에 작업을 시작했다. 가장 바쁜 팀은 대구에 있는 팀이었다. 최초의 사건 중 하나는 미국인들이

²⁶ "Zpráva o činnosti DKNS" (28.12.1954) /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1954년 12월 28일).

²⁷ "Čechoslováci v Koreji" (한국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20 쪽.

'비밀' 표시가 있던 상자의 검사를 거부한 것이며, 이것은 대구에서 일어났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자신과 폴란드의 발의권 덕분에 NNSC가 사찰 팀을 대구에 파견하고 상자의 검사를 허용했다고 강조했다.²⁸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모든 대표국가 간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태도가 거듭 나타나기 때문에 사찰은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의 동지로서 체코슬로바키아의 관점에서 보면 스웨덴과 스위스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도발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다른 국가들에게 체코슬로바키아가 사찰 팀의 검사를 방해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찰 팀의 검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스웨덴과 스위스가 사찰 팀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NNSC 회의 당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스웨덴은 사찰 활동방법에 대한 협상을 NNSC의 회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을 했다. 이 협상의 목적은 남한에 있던 사찰 팀의 활동을 제한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처분의 필수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국인들은 북한, 중국,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했다. 또한 미국인들은 기동 사찰 그룹을 조선인민군과

²⁸ "Zpráva o činnosti DKNS v Koreji od 1. srpna 1953 do 30. června 1959" (한국 내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1953년 8월 1일부터 1959년 6월 30일 까지), 4쪽.

중국인민군의 육군 통제하에 있는 영토에 보낸 것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그들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이 요청을 거절할 것이 확실했다. 그래서 미국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감독위원회의 임무를 방해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스웨덴과 스위스가 감독위원회의 임무에 더 적합함을 증명하고자 했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들에 따르면 스웨덴과 스위스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북한에 있는 사찰 팀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체코슬로바키아가 그들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했다. 이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사찰 팀 활동의 초창기부터 계속된 서로에 대한 비난이었다.

1954 년 2 월 9 (19)일에는 레이시 (Lacey) 장관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존재를 의심하여 체코슬로바키아가 한국으로 전투 무기를 보냈다고 했으며, 또한 북한과 체코슬로바키아가 정전협정서를 위반했다는 편지를 썼다. 더 나아가 그는 남한에 있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사찰 팀 3 개를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요청을 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은 정전협정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은 유엔 본부가 이를 위반했으며, 유엔이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을 억류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간의 비난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대표들은 정전협정서에 대한 미국의 위반을 탐지하고자 더 노력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54년 4월 13일자로 남한에 있는 사찰 팀 활동의 제한과 제약에 대한 공동 보고서의 초안을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유엔의 고발을 거부한 것이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보고서를 거부한 뒤,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4월 29일에 다른 공동 보고서를 보냈는데, 여기서 미국이 한국으로의 전투 장비 수출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위원회의 긴장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남한과 북한간의 긴장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의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와 북한간의 긴장 또한 고조되었다.

...폴란드 정부의 정보에 의하면 북한과 중국은 폴란드에게 여러 종류의 절차와 조치를 요구하는데, 이 요구들은 항상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북한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에게 스웨덴과 스위스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과장된 숫자와 왜곡된 사실을 제공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폴란드의 정부는 이 과장되고 왜곡된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폴란드가 요구를 충족시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 나라는 폴란드와 같은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과 북한의 모든 요청 및 제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지들과 함께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다국적 차원을 고려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스웨덴과 스위스의 제안을 거부할수록 그들에게 중국과 북한 및 우리의 중립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해결방법을 찾고 중국과 북한의 요구에 잘 맞으며 우리 대표단의 중립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협력의 장점은 기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동지들의 제안에 대한 상호 토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위원회의 처분이라는 문구를 선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용어와 의견에 의존하게 만들 것입니다..... 편지와 연설에서는 공격적인 말투를 피하시고 진술은 암호화된 전보로 외교부에 미리 보내 주시오.....위원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웨덴과 스위스는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합리적인 제안과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공격적인 태도를 없애고 그들이 우리의 제안을 거부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속적인 통제는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유지하고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의 개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진행가능성에 대해서 폴란드 및 우리의 동지들과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오.²⁹

²⁹ "Činnost' DKNS", Telegrafická zpráva, 24.5.1954 (1954년 5월 24일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활동에 관한 전신).

1954 년 5 월말에는 폴란드는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떠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미국인들이 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하여 자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전투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위장 도구로써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사용한다고 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위원회를 떠나는 것을 반대했는데, 틴궤이 (Tin Kuo Y) 대장은 5 월 28 일에 프란티셰크 부레스 (František Bureš) 사령관을 방문하고 부레스의 의견을 물었다. 틴궤이 (Tin Kuo Y)가 29 일자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북한과 중국간의 회의의 개최를 제안 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견해를 표명하도록 했다.

보고서의 의하면³⁰ 미국인들은 정전의 안정성을 방해하도록 위원회의 철수를 원했다. 이를 통해서 인도 차이나의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만든 초안도 함께 철회 함으로써 정전을 방해하고자 했다. 또한 미국인들이 위원회의 철수를 원하는 이유는 그들의 전투 장비 수출이 중단되는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한을 포함한 모두 4 개의 국가들은 미국인들의 정전의 위반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정전 위반을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스웨덴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북한과 중국의 태도를 개선하고 좋은

³⁰ "Činnost' DKNS", Telegrafická zpráva, 30.5.1954 (1954 년 5 월 30 일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활동에 관한 전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측 위원회의 대표 국가들간의 긴장이 계속 되었지만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 및 폴란드의 의견은 일치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들은 폴란드의 크레멘(Kremen) 장군이 스웨덴과 스위스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였고 스웨덴, 스위스와 미국 차이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또한 크레멘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동지로부터 받은 조언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고 했다. 체코슬로바키아, 북한, 중국의 관점은 상이했다. 한편으로는 폴란드가 그들에 대해서 투쟁하는 당사자의 회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체코슬로바키아, 북한, 중국은 토론이 필요 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와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 또한 회의 동안 염증이 났기 때문에 잘못이 있었다고 고백했다.³¹ 또한 국방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³² 체코슬로바키아는 스웨덴과 스위스가 사찰 그룹을 북한에 보내려고 했지만 북한은 거절했다. 그 후에 북한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요청을 거절한 사건을 언급하며 실수를 인정했다.

앞서 언급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염증은 1954년 8월에 북한에서 받은 메시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 장개석

³¹ "DKNS - Korea", 19.7.1954 (NNSC - 한국, 1954년 7월 19일 보고서), 1쪽.

³² "DKNS Korea-Keson", 28.7.1954 (NNSC 북한 - 개성, 1954년 7월 28일 보고서).

(蔣介石, Chiang Kai-shek)이 그의 대리인에게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감독위원회의 회원들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했다.³³

3.1.1 북경회의 - 전술의 변화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긴장을 없애고자 회의를 했으며 1954년 6월초에는 북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전술을 바꾸기로 했다. 감독위원회 내의 긴장의 완화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외교부가 담당할 교육이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국제 정세, 특히 제네바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미국이 인도차이나에서 감독위원회 수립에 실패한 사례를 들어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유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8월에는 북경에서 다수의 회의 후 국제적으로 변화된 정세에 따라 새로운 제안이 만들어졌다. 긴장의 완화는 주요 임무로 확립시키며 중국인민지원군 두 개의 군단 철수가 결정되었다. 위원회는 국제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되어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했다. 중국, 북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만약 위원회를 유지하지 못 한다면

³³ "Zpráva DKNS", 13.8.1954 (1954년 8월 13일 NNSC 보고서).

미국인들이 그 위원회의 철수의 책임이 있으며 위원회의 철수가 곧 정전의 종착을 의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경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 1) 위원회의 회원들간의 협력의 필요성과 사업 활동의 범위 확대
(특히 직원의 관리 및 북한에 있는 물품의 교체)
- 2) 스웨덴과 스위스와의 관계의 개선
- 3) 유엔 내의 미국과의 관계의 분위기의 개선

또한 사찰 팀의 파견을 거절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물질 교환의 월별 평가와 전투 장비의 교체를 공동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전에는 정전의 위반을 폭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국가들이 타협에 대한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조치를 취했는데 비행기의 아류형 (비행기의 서브타입), 예비 부품과 전투 장비가 실제로 없는 부분에 대한 신고가 취소되었다. 또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의 목록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통제의 차이 주장에 대한 방어로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사찰 팀의 활동 지침을 마련했다. 1954 년 11 월 말로 모든 조치가 완료되고 감독위원회 대표단의 4 국가들 모두 새로운 지침을 받아 들었다. 지침에서 설정한

규칙들 중에는 인원과 물질의 신고와 무작위 검사를 수행하는 의무가 있었다.³⁴

위에 언급한대로 북한 내의 위원회의 대표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북경 회의가 진행되던 때에 남한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감독소조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전보다 더욱 긴장되었다.

3.1.2 남한 내의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단에 대한 반대 시위

1954 년과 1955 년에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의 대표들의 존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남한에서 열렸다. 이승만 정부는 NNSC 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여기지 않았다. 거의 모든 사찰 팀은 남쪽에 거주했으며 '붉은 간첩'에 반대한 시위들이 반복되었다. 또한 시위자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들을 총으로 쏘았고 그들의 거주지에 수류탄도 던졌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원 바츨라프 리디게르 (Václav Rydyger)는 1954 년 여름의 시위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³⁴ "Zpráva o činnosti DKNS v Koreji od 1. srpna 1953 do 30. června 1959" (한국 내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1953 년 8 월 1 일부터 1959 년 6 월 30 일 까지), 9 쪽.

8 월 2 일부터는 NNSC의 활동의 새로운 국면, 즉 이동 자유 제한의 기간이 시작되었다. 부산에서는 식당에 들어가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위원들 4 명에게 총격을 퍼부었다. 가해자는 약 10 미터 떨어진 울타리 뒤에 숨어있었다. 회원들은 총상을 입지 않았는데 대구경의 총알은 식당 벽에서 발견되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미리 준비된 도발들이 계속되었다. 8 월 3 일과 4 일에 군산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대표들의 거주지에 3 개의 폭탄이 떨어졌다. 인천에서는 항구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고 사찰 팀은 체류한 월미도 섬에 연결된 좁은 도로를 건너려 했지만 지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대구에서는 보행자, 구호를 내건 버스를 탄 소요자들과 그 수장이 거주지의 입구 앞에 모여서 구호를 외치며 공항 검사에서 들어오는 사찰 팀의 사람들을 위협했다. 지역 경찰이 지휘봉을 쓰게 되면서 즉각 개입하고 도로를 내어주었다. 그러나 시위대 막사의 두 번째 입구로 통과했는데 거기에서는 거주지를 잘 볼 수 있었다. 무장한 지원군과 장갑 차량 또한 호출되었다. 경호 강화는 몇 주나 걸렸다. 사찰 팀은 월미도에 거주하면서 깃대를 4 개나 만들었지만 깃발을 올려 본 적이 없었다. 그 이후 남한 언론에 나온 소요관련기사, 이름을 언급한 간첩에 관한 기사, 그림, 위협,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회원들을 한국에서 쫓아내어달라는 요청 등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처분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³⁵

³⁵ "Václav Rydyger- Deník 1954- 1955" (바츨라프 리디게르의 일기장 1954-

국방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에서 1954년 8월 2일 12시 15분에 체코슬로바키아 사찰 팀의 앞에서 이승만이 이끄는 학생 500명이 십 분간 시위를 했고 오후 5시 55분에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들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앞서 언급한 사건이 일어났다. 군산에서 시위를 했을 때 서투른 영어로 쓰여 있던 ('러시아의 꼭두각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즉시 나가라. 정전 감독그룹을 변장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빨갱이. 도망가라. 우리의 적대자. 나가라. 생활 보장이 없다.')(Russians puppet Czechoslovakia and Poland delegate. Get away at once. Czechoslovak and Polisch delegate red spies disguised by truce observation group. Run away. Our Enemy Czechoslovakia and Poland. Get out. No garante of life.)라는 기치가 내걸렸다.³⁶

1954년 8월 2일부터는 인천, 대구, 부산, 강릉과 군산에서 벌어진 시위로 인한 이동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들의 안전성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들의 거주, 막사와 시내에서 이동의 자유가 있었지만 시위 사건 직후 도시 산책이 금지되었다. 또한 지프와 세단형 자동차로 사찰 장소로 수송하는 대신에 검은 호일로 밀폐한 창문이 있는 헬리콥터로

1955), 36쪽.

³⁶ "DKNS - Korea", 3.8.1954 (NNSC - 한국, 1954년 8월 3일 보고서), 1-2쪽.

수송함을 규칙으로 하며, 항구에서는 전면 무장시킨 상륙용 선박으로 수송했다. 1954 와 1955 년에 감독위원회에서 근무를 했던 야로슬라브 코마레그 (Jaroslav Komárek)는 헬리콥터로 수송을 언급하고 미국 경찰의 안전을 위한 관행에 대한 의심을 표현했다:

항공과 항구의 검사를 위해서 검은 호일로 밀폐한 창문이 있는 헬리콥터로 비행을 시작하여 매우 어두웠다. 헬리콥터를 타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출발하는 것이 그다지 편하지 않는 줄 알지만 어두움은 특히 성격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너무 불편하다. 그것은 위원의 정신을 방해하는 또 다른 시도였다. 어떤 경우에는 헬리콥터를 타기 싫어하는 우리의 위원을 교체하게 되었다. 남한 경찰들은 다른 이상한 불편한 '게임'도 만들었다.³⁷

1955 년 여름에 남부 항구에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대표단에 반대하는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시위에는 이승만의 사람들의 여러 연령 그룹이 참여했다. 시위 대의 대부분은 14-15 세의 아이들로서, 선생에 의하여 손을 들면서 이해할 수 없는 구호를 외쳤는데, 그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 '체코 붉은 간첩 나가라'. 나중에 시위대의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라디오 자동차, 그리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는 트럭으로 대체되었다. 남한 경찰의 수석자

³⁷ "Denník Jaroslava Komárka" (야로슬라브 코마레그의 일기장), 6 쪽.

원용덕 (Won Yong Deok) 장군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일 주 안에 남한에서 떠나지 않으면 가장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알렸다. 원 장군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가 주권이 다시 외부인에 의해 침해되면 주권 국가는 적인 외부인을 용인할 수 없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은 군사 전략적 정보에 대한 간첩 활동을 수행하고 적군에게 전달한다. 또한 공산주의 지하 운동을 지원한다. 아직까지 이 적대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시급하고 책임도 너무 크게 되어, 우리의 자기 방어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³⁸

그러나 미국은 양국이 정전의 조건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남한인들이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일컫던 '빨갱이'의 안전성을 보장 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의 지휘관 카터 (Carter) 또한 이 약속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체코슬로바키아 간첩 활동 혐의 대해서 남한 언론에 증거가 나타났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한국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들의 찍었던 사진이었다. 이 사진들은 남한에 있는 미국과 남한 실험실에서 현상된 후 신문에 등장했다. 미국은 결국 다양한 대책을 세워 순찰을 강화하고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의 대의원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³⁸ ADO MZV (체코공화국의 외교부의 사고), fond 7. t. o. Korea 1945-54 monitory tisku z Koreje (한국 언론의 기사들의 요약).

보안을 유지하도록 수용소에서 검문소로 이송되었을 때 남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1954년 시위 때처럼 검은 호일로 밀폐한 창문이 있는 헬리콥터로 이송이 되었다.

이러한 소요를 거치면서 체코슬로바키아가 남한 정권에 더욱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의 의견에 따르면 제네바 회의 직후 시위와 공격이 증가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평화 유지군은 인도차이나에서 끝내고 승리함으로써 '미국 내의 공격적 단체'가 제네바에서 새로운 패배를 맛봤는데,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며 아시아에서 새로운 전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남한의NNSC의 회원에 대한 최근의 공격은 하이난 중국 섬에 대한 미국의 도발, 동남 아시아와 서부 태평양에서 모욕적인 조약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노력, 미의회 앞에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열심인 이승만, 그리고 미국 공무원들의 중국과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한 심화된 공격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³⁹

³⁹ ADO MZV (체코공화국의 외교부의 사고), fond 7. t. o. Korea 1945-54, 234 쪽.

3.1.3 사찰 활동의 감축 및 사찰 팀의 종말

1954 및 1955 년 사찰단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사찰 활동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1955 년 1 월에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NNSC 의 철수를 촉구했으며 위원회가 'raison d'être' (존재 이성)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변영태 장관은 북한에 자유가 없어서 위원회의 활동이 비효율적이고 따라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 병력의 삼분의 이가 나갈 것이라고 했다.

1955 년 1 월 27 일에 스웨덴과 스위스의 정부가 중국과 미국의 정부에 새로 발행한 각서를 보내며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사본을 받았다. 스웨덴과 스위스의 정부들은 위원회의 철수나 적어도 축소를 요청하며 철수의 경우에 위원회의 역할을 군사정전위원회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위원회의 철수에 동의를 하고 스웨덴과 스위스가 NNSC의 철수나 축소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요청을 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1955 년 4 월에 스웨덴과 스위스가 감독위원회의 축소를 제안했는데, 소위 '상징적인 존재'로 바꾸자는 것이 제안의 내용이었다. 감독위원회의 상징적인 존재의 개념은 항구 총 10 곳에 있었던 사찰 팀의 철회를 의미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이런 개념을 거절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상설 사찰 팀은 네 나라 대신 두 나라로 구성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 사찰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위원은 50 %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⁴⁰

NNSC 협상의 몇 개의 결과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전달했던, 1955년 5월 2일의 편지였는데, 위원회는 이 편지의 각 면에 두 사찰 팀의 활동을 중지시키도록 제안했다. 이 편지는 상설 사찰 팀을 두 나라로 구성한다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제안도 포함되었다. 한국 내의 NNSC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⁴¹에 따르면 편지는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지만 스웨덴과 스위스는 이 제한이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찰 팀의 규모를 더욱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고 했다. 북한과 중국은 최초로 편지에 응답하며 제안된 감축에 동의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응답을 하지 않고 논쟁을 피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미국이 남한의 검사 활동의 철수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했다. 1955년 8월 5일에 남한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어 8월 13일까지 남부 항구에서 모든 사찰 그룹을 철수해 달라는 최후 통첩을 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임의의 전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⁴⁰ "Zpráva o činnosti DKNS v Koreji od 1. srpna 1953 do 30. června 1959" (한국 내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1953년 8월 1일부터 1959년 6월 30일 까지), 13 쪽.

⁴¹ 위의 자료, 13 쪽.

아니라 군사정전위원회에 의뢰했다.⁴² 체코슬로바키아는 통제와 사찰활동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으며 모든 사찰 팀에게 지시하여 사찰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전보를 보냈다.

1955년 8월 30일에 이승만이 응답을 했으며 사찰 팀의 축소에 동의했다. 이승만은 이 축소가 임시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사찰 팀을 전적으로 해산하는 것이 유일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에 대구, 강릉, 청진과 흥남에 있는 상주 사찰 팀이 취소되었다. 입국 항구는 인천, 부산, 군산, 신의주, 신안주와 만포만 남아 있었다. 남아 있는 아류형 (서브타입) 팀이 되었고 축소 되었다. 10월에는 스웨덴의 회원들이 모든 상설 사찰 팀이 입국 항구에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으며 이 팀의 역할은 이동 팀으로 대체된다고 했다.⁴³ 스위스는 제안에 동의했지만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북한과 중국 또한 반대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이 제안은 미국의 파크스 (Parks)⁴⁴ 장군의 발표했던 NNSC의 철수 계획의 일부라고 했으며, 스위스와 스웨덴의 철수를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부 수준으로 이양한다고 했다. 스위스와 스웨덴이 중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⁴² "Zpráva DKNS", 10.8.1954 (1954년 8월 10일 NNSC 보고서).

⁴³ "Zpráva o činnosti DKNS v Koreji od 1. srpna 1953 do 30. června 1959" (한국 내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1953년 8월 1일부터 1959년 6월 30일 까지), 16쪽.

⁴⁴ 당시 유엔의 고위 위원.

논의를 했다. 중국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각 쪽 (북한 및 남한)에 사찰 팀이 1 개가 남겨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1956 년 4 월 9 일에 중국이 북한 정부와 협의 후 한국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에 관한 관련 국가들간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 요청을 했다. 중국과 북한은 외국 군대가 철수하면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중국 정부가 중국인민지원군 여섯 개의 사단을 철수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그들의 중립을 보여 주고 싶어했기 때문이다.⁴⁵

이 문제 외에도 NNSC의 작업은 곧 사고로 처리 되었다. 첫째, 11 월 7 일에 미국 헬리콥터가 군산에 추락했을 때 폴란드 대표 3 명이 사망했다. 둘째, 1956 년 1 월에 부산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했고 스웨덴 대표단의 책임자가 교통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므로 이동 중 안전 문제와 사고에 대한 보상은 더욱 중요한 안건이 되었다. 이 신뢰성 문제로 인해 양측은 서로 비난하는 일이 발생했다. 1956 년 2 월 및 3 월에 NNSC의 대표 국가들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서로 비난을 계속 했다. NNSC는 정전협정 위반 상호 비난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전 당사자들의 비판의 영구적인 공격이 되었다. 3 월 10 일에 스웨덴은 상주 팀들이 판문점에서 임시 철수를 하도록 제안했다.

⁴⁵ "Zpráva o činnosti DKNS v Koreji od 1. srpna 1953 do 30. června 1959" (한국 내의 활동에 관할 보고서, 1953 년 8 월 1 일부터 1959 년 6 월 30 일 까지), 16 쪽.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하여 남한이 상공 위반에 대한 북한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5 월말에 70 번째 군사정전위원회 총회에서 유엔과 군사정전위원회는 NNSC의 정전의 조항이 정지되는 것을 선언했다 - 제 13 항 (ㄷ)목 (군사 인원의 증원 금지), 제 28 항목 (비무장 지대 밖에 보고된 정전 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 제 42(c)항목 (입국 항구와 비무장 지대 밖에 보고된 정전 협정 위반에 대한 유엔 검사 팀이 의한 감독 및 조사), 및 제 43 항목 (입국 항구에 주둔 직원의 움직임의 자유)이 정지되었지만 제 13 (d) 항목은 ⁴⁶ 관측이 계속되었다. ⁴⁷ 언급된 총회 당시 가드 (Gard) 장군이 NNSC는 비협조적인 중국의 태도와 체코 및 폴란드 팀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에 있었던 NNSC의 검사 활동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비협력적인 태도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이 세 나라 검사를 거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했기 때문이다. 북한은NNSC에 대한 남한의 적대적인 태도와 그의 업무 방해라고 했고, 남한은 위원회의 해체는 영구 평화의 상태로 정전 전송의 단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 월 4 일에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 때 북한은 남한이 사찰 팀의 작업을 방해한 것과 제 13 항 (ㄷ)목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공격했다. 남한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동 사찰

⁴⁶ 11 페이지를 참조.

⁴⁷ Jonsson, 2009, 83 쪽.

팀이 1953 년과 1956 년 사이에 북한에 열 번 파견되었지만 당사자들은 조사 결과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6 월 5 일에 NNSC는 판문점에서 사찰 팀을 일시적으로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군사정전위원회에게 편지로 선언했다. 72 번째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철수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원회의 제안이 유엔과 군사정전위원회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데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한 그들은 남한이 한국을 재무장시키는 제안을 거부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남한의 반응은 북한이 NNSC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었다. 6 월 8 일에 군사정전위원회는 1957 년 6 월 9 일부터 NNSC 사찰 활동을 중지할 것이라고 NNSC에게 편지로 선언을 했다. 이에 9 일에 특별한 회의가 개최되어 NNSC는 판문점 모든 사찰 팀의 (신의주, 만포, 신안주 - 북한; 인천, 부산, 군산 - 남한) 철수에 동의했다. 팀들은 6 월 9 일에 남한에서 철수되고 6 월 12 일에 북한에서 철수되었다.⁴⁸ Mueller-Lhotska는 NNSC가 '감독 없는 위원회'가 된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그것의 역할은 순전히 상징적인 기관의 존재로 축소되었다. 위원회는 사찰의 수행을 계속되지 못했지만 정전 협정이 시행의 남아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⁴⁸ Jonsson, 2009, 577 쪽.

위에 언급한대로 남한과 미국은 NNSC가 철수되는 것을 원했다. 1956년 6월 18일에 한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No - Man's-나라' 관문점을 포함 NNSC를 해산하고 한국 한반도에서 추방하기 위한 동의를 유엔에 제출했다. 중립 기관으로서 NNSC는 한국의 재무장을 방해하고 제거 돼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유엔군대표단은 NNSC의 유용성을 부인하면서, 공식적으로 해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유엔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정전협정 계약 체결 이후 상황이 변경되어 규정을 실행하는 것은 자체 방어와 모순되었다. 한편으로는 북한과 체코슬로바키아는 NNSC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⁴⁹

3.2 협력의 둘째 단계 - 평온의 기간?

군사 사찰 활동의 점진적인 제한으로 인해 대표단의 정치-외교 활동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되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1956년 6월 12일까지 사찰 팀들이 북한과 남한에서 철수했다. 1957년 4월 1일부터 NNSC에 대한 활동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뀌었는데 이 변경은 NNSC 다른 대표 국가들도 외교부 밑에 있었기

⁴⁹ Jonsson, 2009, 90-91 쪽.

때문이었다.⁵⁰ 이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의 협력의 둘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NNSC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따르면 NNSC가 정치적 기관이 되었다. NNSC의 역할은 정전협정서의 법적 규정의 국제적·정치적 중요성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NNSC가 정치적인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이 한국을 거대한 핵 거점으로 만들 계획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NNSC의 현존 덕분에 한국에서만 아니라 극동에서도 군사 긴장이 감소되었다고 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정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웨덴과 스위스와 협력하면서 양보를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공격적인 의도'를 밝히고자 했다.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NNSC 내에서 높아진 중요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또한 북한과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으며 북한, 중국과 함께 매일 연락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폴란드의 회원들의 언어·교육 등 낮은 수준이 북한과 중국과의 의사 소통에 영향을 미쳐, 북한은 폴란드 회원들로 하여금 체코슬로바키아를 모범으로 삼도록 했다.

⁵⁰ "Vyjádření ke zprávě o činnosti čs. Delegace DKNS v Koreji : Návrh na převzetí péče o československou delegaci v DKNS v Koreji Ministerstvem zahraničních věcí" (NNSC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의 주석), 4 쪽.

1956년 6월은 비교적 조용한 기간이었는데, 북한은 스웨덴과 스위스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이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북한의 요청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들은 스웨덴, 스위스의 대표들과 함께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는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 의사들이 당시 북한을 방문하려 오는 것에 희망을 걸었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를 의심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적절한 사회적 접촉과 함께 스웨덴, 스위스와 미국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협상시 자신의 입장을 높일 수 있더라도 큰 기대를 가질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NNSC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ultima ratio' (마지막 수단)가 국제적 공개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했고, 정전협정을 폐지하려 하는 자들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⁵¹

동시에 (1956년 6월 21일부터 25까지) 북한의 주석 김일성은 북한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했다. 토론의 주요 주제는 관계의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과 북한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 협력이었다.

⁵¹"Mimořádná zpráva o stycích čs. delegace a delegací polskou a korejsko-čínskými přáteli"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과 폴란드, 북한,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주요 문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에게 국가 경제 건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문화 및 과학교육의 교류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문화 협력의 조약을 체결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에게 연구자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⁵²

위에서 언급한대로 6 월은 NNSC의 비교적 조용한 기간이었지만, 7 월에는 또다시 긴장이 시작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은 NNSC가 남한의 군사력 확산과 근대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NNSC를 철수하고 싶어했다. 이 노력의 도구는 바로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표들이었고, 그들은 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몇 가지의 제안을 했다. 예컨대 군사 인원의 도착과 출발의 새로운 평가의 방법과 군사 물자의 교환에 대해 제안하고, 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스웨덴과 스위스가 각자의 대표단을 철수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것은 위원회의 붕괴로 이어지고 철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길 것이라고 했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은 스웨덴과 스위스에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주었는데, 국제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들의 평화적인 노력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제국주의 자들은 평화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것은 헝가리에 있었던 반혁명과

⁵² AMZ (체코공화국의 외교부의 사고), D. 1956, č. 7, 245 쪽.

이집트에 대한 침략에 반영되었다고 했다.⁵³ 이 주장은 1957년 4월에 북한에서 개최된 북한과 체코슬로바키아의 회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사회주의 국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국가들간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련과 중국과의 우호적 협력은 사회주의의 방어와 세계 평화의 강화 보장이라고 강조했다며, 두 정부는 유엔에서 중국의 법적 권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⁴ 또한 다른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다.

5월에는 NNSC 내의 의견 불일치가 더욱 빈번해졌다. 5월 14일에 존 포스터 덜레스 (John Foster Dulles) 미국 국무 장관은 미국인들이 이승만 정부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국에 핵 탄두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자 회견에서 발표했다. 정전 협정 해체를 향한 마지막 단계는 6월 21일 개최된, 유엔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에 의해 요청된 75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였다. 유엔과 군사정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제 13항 (ㄷ)목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미국이 남한을 핵무기 기지로 만든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제 13항

⁵³ "Vývoj Dozorčí komise neutálních států v letech 1953 až 1957 a postup československé delegace"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진행 및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 활동의 과정), 4쪽.

⁵⁴ AMZ (체코공화국의 외교부의 사고), D. 1957, č. 5-6, 191-194쪽.

(ㄹ)목의 일방적 중지가 심각한 정전 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며 철수를 요청했다.

제 13 항 (ㄹ)목의 중지로 인하여 NNSC의 작업은 과거보다 더욱 축소되었다. 매주 화요일 10 시에는 NNSC의 본부에서 '10 시 오전 공식적인 주간 회의'가 계속적으로 개최되었지만 회의는 2~4 분 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문서는 공식적으로 정확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한 달에 한번 발간된 보고서는 '정전 협정의 위반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했다.⁵⁵ 사찰 활동과 제 13 항 (ㄹ)목의 중지로 NNSC의 행정 활동은 회의를 준비하고 문서를 편집하는 행정 업무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다른 문서들에서도 확인되었다.

제 13 항 (ㄹ)목이 취소된 후, 북한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시도로 정당화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NNSC의 활동에 대한 '추가 보고서'⁵⁶에 따르면 1957년 10월 7일에 북한은 무역 관계의 재개와 남북 간의 상품교환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성공하지 못 했는데, 이는 북한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주장대로 남한 정부의 통치가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이 주장의 기원은 1958년 1월에 유엔과 한국 군대가 비무장 지대 근처 '스노우 플레이크' (Snow

⁵⁵ Jonsson, 2009, 98 쪽.

⁵⁶ "Doplňek k informační zprávě o vývoji Dozorčí komise neutrálních států v KOREJI" (한국 내의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에 관 보고서, 부록), 2 쪽.

Flake)라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였다. 당시 280mm 원자포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월 29일에 유엔위원회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했는데, 무기는 '어네스트 존' (Honest John)이라는 미사일과 원자포였다. 화포와 '어네스트 존' 미사일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5월 1일에는 미사일과 원자 화포의 발사를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다. 북한은 남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이 자신의 국가를 핵 기지로 만든다고 했으며 이것 때문에 남한이 제 13항(ㄱ)목을 폐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NNSC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승만은 갑작스럽게 NNSC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는데, 1957년 12월 27일에는 *The Korean Republic*에서 NNSC를 공식적인 기관으로 받아들였다. 연손(Jonsson)은 이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스노우 플레이크'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어네스트 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고려하면 논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58년에는 무기 제거⁵⁷ 뿐만 아니라 군대 철수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북한의 공통 논의 주제였다. 북한과 체코슬로바키아는 미군의 철수를 요청했지만 유엔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군이

⁵⁷ 한국의 투우사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불법으로 수입된 무기를 제거하는 북한의 요청.

시민들의 자유와 평화적 재통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NSC의 대표국가들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남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고, NNSC또한 자신의 철수를 반대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에 따르면 스웨덴과 스위스도NNSC의 철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은 스웨덴 대표단의 회원 중 1 명이 당시 유엔의 사무 총장이었으며 정치적으로 국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자신들의 NNSC 탈퇴가 위원회를 해칠 수 있고 한국의 정전협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이유는 스웨덴과 스위스가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로 인해 중국 시장으로 확장해야 하며, 따라서 중국의 관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⁵⁸

1958년 말, 한국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서류에서 NNSC와 관련한 북한의 활동의 비판이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2월 1일의 보고서는⁵⁹ 비무장 지대의 일부 구역에서 지뢰를 매설하는 곳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북한은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남한 간첩들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⁵⁸ "Doplňek k informační zprávě o vývoji Dozorčí komise neutrálních států v KOREJI" (한국 내의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서, 부록), 5 쪽.

⁵⁹ "Zpráva o činnosti čs. delegace v DKNS", 1.12. 1958 (1958년 12월 1일 NNSC 내의 체코슬로바키아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5-6 쪽.

모든 행사를 은밀하게 했는데, 지뢰를 매설하는 사실을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대표들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뢰가 터져 폴란드의 정비사 예조라 (Ježora)가 큰 부상을 입었을 때 위원회 내에서는 보안과 신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스웨덴과 스위스에게 계속 밝히지 않았으며, 예조라는 개성 인근에서 여행 했을 때 그의 다리가 골절 되었다고 주장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상황에 실망했다. 또 다른 실망은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의 대표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스위스와 스웨덴의 캠프에 자유로운 기동을 방해했으며 가이드와 함께만 이동할 수 있었다. 또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관문점에 들어갈 수 있었고 휴양을 위한 차량은 북한 운전사가 운전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제한이 스웨덴과 스위스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북한과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 했다.

북쪽의 위원회 내에서는 긴장이 지속되었지만 공통의 관심사 때문에 협력의 관계로 알려져 있었다. 1959년 10월 10일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 안토닌 노보트니 (Antonín Novotný)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공통 관심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완전한 군축에 대한 소련 정부의 제안을 지원했고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에 대한 북한의 요청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해외 군사 기지가 폐기되어야 하며 해외 제국주의 세력이 아시아 지역을 떠나야 된다는 공동의 의견을 발표했다. 결론적으로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고수하고 소련의 공산당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⁶⁰

⁶⁰ 「Společné Československo-Korejské komuniké o návštěvě prvního tajemníka ÚV KSČ a presidenta republiky A. Novotného v KLDK" (체코슬로바키아 중앙위원회 공산당의 첫 번째 장관 안토닌 노보트니의 방문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의 공동 성명)」, 『Rudé Právo』, 1959년 10월 11일.

제 4 장

60년대 - 관계의 긴장

4.1 60년대의 감독위원회 내의 상황

50년대에 NNSC 사찰 팀이 해체되고 제 13 (d)항목의 취소된 것은 위원회의 작업을 방해했고, 이는 정전협정의 실현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대표국가들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는 협정의 위반이었는데 이는 60년대 때 더욱 심각해졌다. 60년대 정전협정 위반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사력 증강과 비무장지대의 완전 무장화였다. 해상 및 공중위반 건수의 급증은 이 시기 군사적 충돌이 빈번했음을 보여주며, 간첩 및 무장세력 침투와 비무장지대 내 충돌도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⁶¹

군사력에 대한 논쟁이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아무 측도 재무장을 고백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군의 철수를 계속 요구했지만 남한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여겼고, 그리고 이 문제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1961년 북한은 소련 및 중국과

⁶¹ 김보영, 2003, 192 및 173 쪽.

상호 안보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남한에 군사적 지원을 늘렸는데, 이로 인해 긴장이 증가했다. 육지, 해상, 공중위반의 급증으로 인해 겉으로만 평온한 긴장의 상태가 심화되었다. 1967년부터 1969년까지의 시기는 '제 2 한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보영은, 군사정전위원회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지만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도구로 가능했으며, 전쟁 재발을 막는 데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김보영은 1960 년대에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리는 판문점이 '동서냉전'의 틈바구니에 낀 설전장 (舌戰場)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손 (Jonsson)은 위원회의 작업이 의심할 여지없이 그런 상황에 의해 방해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평화 유지 역할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⁶²

사상자가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이 모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킨 것은 아니었으나, 몇몇 경우에는 그랬다. 1968 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암살 시도와 푸에블로호사건이 가장 뚜렷한 예라고 할 수 있다.⁶³ 1968 년 1 월 23 일에는 북한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Pueblo)가 북한의 해군초계정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었다. 암살 시도 때문에 남북 긴장

⁶² Jonsson, 2009, 187 쪽.

⁶³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313 쪽.

상태가 극적으로 심해졌지만 그것은 이내 푸에블로호사건에 의해 가려지게 되었다. 남한은 이 사건에 대한 회담에서 제외되어 미국과 북한을 비판했다. 따라서, 미국은 승무원의 반환과 함께 끝난 문제로 치부하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고, 서류에 서명한 후에도 협의사항을 이행하기를 거부했다. NNSC는 푸에블로호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문제를 해결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위원회에 대한 대표국가들의 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NNSC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NNSC는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긴장 관계를 완화하면서 쌍방과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다. 이 사안에서, 비공식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중요했다. 그러나 군사정전위원회는 당사자국들의 의견의 비공식적인 교류를 장려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은 공식 회의 밖에서 만난 적도 없었다. 요컨대 1960년대 동안에는 1950년대와는 달리 NNSC가 정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60년 12월 한달 동안의 체코슬로바키아는 위원회 내 분위기의 변화에 대한 낙관적인 보고서를 제공했다.⁶⁴ NNSC 내의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락 장교 매닝스

⁶⁴ "Zpráva o činnosti čs. Delegace v DKNS za prosinec 1960" (1960년 12월 NNSC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2쪽.

(Mannings)는 NNSC의 대표단의 직원 회의마다 와서 체코슬로바키아 대표자들에게 자신의 무관심한 행동을 사과했다고 한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정전협정 문제들과 북한의 대남강경노선과 관련된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불신 때문에 낙천주의를 잃게 되었다. 1961년 1월 11일 북한에서 개최된 중국,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간의 회의에서는 스위스가 제안한 위원회의 통제 역할의 복원에 대해서 논의했다. 스위스의 대표단의 회원 하트만(Hartmann)에 의하면 이런 복원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와 다른 위원들도 늘일 수 있다고 했다. 긴 토론 후 주(Zhu) 장군의 이런 조항이 채택되었다:

1. 스웨덴, 스위스, 미국, 남한과의 회의에서 우리는 김일성의 노선을 따라야 하고 NNSC를 포함한 모든 외부 개입을 거부해야 한다.
2. 미국은 위원회의 통제 역할이 그들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언급을 삼가거나, 언급을 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주 장군은 미국의 제국주의자들 한국의 핵 기지를 강화한다고 했다. 또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군이 미국인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NSC에 서한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책임자는 위원회가 다른 아무런 통제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한의 효율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게다가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의 참여를 거부할 뻔하기로 하는데, 이로 인해 긴장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폴란드의 대표들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의견에 동의했다.⁶⁵

위원회 내 긴장의 또 다른 원인은 한국의 통일에 관한 회답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와 북한은 남한의 정부가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을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여전히 남쪽에서 미군 군대의 철수와 외국의 간섭 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많은 국가들이 자유를 얻고 식민지 체제가 붕괴되는 시기에 50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를 지닌 국가의 일부가 식민지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탄했다. 또한 체코슬로바키아는 미군 주군으로 인해 미군의 한국 주군에 대한 시위의 형태로 항의 운동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간섭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국 침략자를 추방하고

⁶⁵ "Záznam o poradě konané dne 11. ledna 1961 ve štábu KLA v Kesonu" (1961년 1월 11일 개성에 있는 조선인민군의 회원에 의해 개최된 회의의 기록), 1-2 쪽.

남한 사람들을 해방하자'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그것은 선전으로 쉽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⁶⁶

남한에 대한 선전은 1962년 9월 초의 비무장 지대에 있는 사건에서도 들어난다. NNSC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9월 5일에 북한 군사들 6명은 북쪽의 비무장 지대의 분계선 옆에서 보초 근무를 수행했는데, 숨이 있던 유엔군 17명이 북한군에 사격을 개시했다. 세 명이 사망했고 세 명이 총에 맞아 부상당했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군은 이러한 도발은 사전에 준비된 것이고 정전협정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엔은 이 주장에 반대했다. 유엔군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화천에서 14마일 경 떨어져 있는 경계선을 넘어와서 도로를 재건축하던 남한 군인에게 사격을 개시했다. 예전처럼, 쌍방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의 NNSC 대표단의 책임자가 힐레(Chýle)는 북한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평소에는 중대한 사건을 빠르게 발표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10일 후에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비슷한

⁶⁶ "Vývoj otázky sjednocení Koreje – souhrnná zpráva" (한국 통일의 질문의 개발 - 종합 보고서), 4-5 쪽.

경우에서는 북한은 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⁶⁷

1962 년 후반부에는 NNSC의 대표단간의 관계가 중요한 이슈였다.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대표들에게 과일 상자를 선물로 보냈다. 선물을 보내는 것은 비공식적이었고 관문점 주재의 유엔단에 의한 연락 장교를 통해 이행되었지만, 남한이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게 그러한 관심을 보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그 선물을 거절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따르면 거절의 주된 이유는 남한이 여전히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를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외교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1962 년 10 월 초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대표단은 서울을 방문했는데, 곧바로 조선 일보에 기사가⁶⁸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북쪽 대표단들이 남한의 발전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기사의 내용이 과대 선전이라고 단정했다. 선물을 거절한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북한은 거절한 것에 대해 만족했고, 1962 년 말 김일성이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 답례를 했다.

⁶⁷ "Incident v demilitarizovaném pásmu" (비무장지대 내의 사건), 1-3 쪽.

⁶⁸ 「Tell Kim Il Song to be our guest too!」, 『조선 일보』, 1962 년 10(?) 월 (?)일; 날짜 미상, NNSC 내의 대표국가들간의 관계 - 보고서 내 기사의 사본.

1963년 1월 9일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위한 만찬이 김 외교부 장관에 의해 열렸다. 김 장관은 대표단에게 감사 인사를 했으며 나날이 팽창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대표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NNSC에서의 성공 또한 언급했으나, 소련,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국제 정치의 전반적인 프레임 워크와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는 일을 도외시하지 않았다.⁶⁹

당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김일성은 절대적인 힘을 원했고, 흐루시초프 (Khrushchev) 의 평화 공존과 비스탈린화 캠페인은 북한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었다.⁷⁰ 이는 Zhao가 언급한 것처럼, 마오쩌둥 (毛澤東, Mao Zedong)이 김일성과 동일한 정치적 가치를 공유했으며, 그 역시 매우 취약한 생활 환경과 유사한 문화 환경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했다.⁷¹ 그리하여,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던 것이 또한 동시에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은 스위스와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 그의 주된 이유는 미국과의

⁶⁹ "Vztahy mezi delegacemi v DKNS- zpráva" (NNSC 내의 대표국가들간의 관계 - 보고서), 1-3 쪽, 5 쪽.

⁷⁰ Park, 1987, 210 쪽.

⁷¹ Zhao, Hui, 2009, 「China-North Korea Relations in Post-Cold War Era : Review and Prospect」, 『CHO, Myung Chul - KIM, Ji Yeon.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North Korea』 Seoul : KIEP, 77 쪽.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장 (Chang) 장군은 스위스 대표 셸러 (Scherler)에게 남한 신문 등을 구해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남한과의 관문점을 통해 우편 연결 서비스도 요청했고 분계선을 통과하고 스위스와 스웨덴의 캠프로 갈 수 있는 허가도 요청했다. 스위스와 미국과의 토론 후 그의 요청이 승인되었다. 양국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스위스와 스웨덴을 평양에 초청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장 (Chang)이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과 셸러 (Scherler) 사이의 논에 관한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북한의 달라진 태도뿐만 아니라, 북경의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표현했다.⁷²

4.2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 - 진실 혹은 위선?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과 북한 간의 첫 번째 긴장상태가 50 년대에 시작되었지만 60 년 대의 보고서에서는 위원회와 실제적 관계에 대한 표현이 더욱더 나타나기 시작했다. 60 년대 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강화하여 중국인민지원군 또한 위원회의 분쟁에 연루되기 시작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인 노선이

⁷² "Vztahy mezi delegacemi v DKNS- zpráva" (NNSC 내의 대표국가들간의 관계 - 보고서), 1-4 쪽.

일치하여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 영향력만큼 커졌다고 주장했다. 1963년 보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 대해 자신의 '북경 노선'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표단은 둘 다 고립되고, 정보를 받지 못 하고, 그리고 조선과 중국과의 논의를 하지 못 했다고 한다. 오히려 북한과 중국은 서양 대표단, 특히 스위스의 편을 들었다. 이 시기 동안 체코슬로바키아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 관계는 공식적으로 겉으로 정중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적대적이고 무성의하다. 폴란드와 우리의 북한과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이 없다.⁷³

7월 19일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스위스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평양으로 여행을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도 서울 여행에 초대되었지만 북한은 이 초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리하여 체코슬로바키아는 폴란드 대표단의 책임자 므로즈 (Mróz)에게 연락했다. 므로즈는 체코슬로바키아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과의 관계가 더욱 긴장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과 중국이 그들에게 적대적이라고 했으며, 다만

⁷³ "Vztahy mezi delegacemi v DKNS" - zpráva, 31.7.1963 (NNSC 내의 대표국가들간의 관계 - 보고서), 1 쪽.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이 무성의한 관계를 고백하는 것의 결과가 어떨지 걱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통화는커녕 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전화 연결이 되자 앓고, 전기가 부족하며 노후한 차량과 상한 음식물과 같은 문제를 겪었다. 또한 그들은 끊임없이 토론의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이 토론없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며 단지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뿐 약속을 안 지키며, 그리고 그들을 '하위 단체'로 간주한다고 했다.⁷⁴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에게는 스스로가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북한당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성 밖으로 이동 할 수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 사람들의 실생활을 알 수 없다고 보고했다. 소위 '북경 노선' 문제는 점점 더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문서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북한의 군사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⁷⁵ 국가 경제의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국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이 '북경 노선'과 '자주국방노선'으로 인해 고립 된 것을 강조했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협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의 당시 책임자 따우스 (Tauš)가 조선인민군과

⁷⁴ "Vztahy mezi delegacemi v DKNS"- zpráva, 31.7.1963 (NNSC 내의 대표국가들간의 관계 - 보고서), 5-6 쪽.

⁷⁵ "Současná vojenská situace v KLDK", 1963 (북한 내 현재의 군사 상황), 2 쪽.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 문제를 쉽고 빠른 해결을 위해 북한을 강제로 무장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긴장이 지속된 이유는 체코슬로바키아가 1964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의 서울 여행에 참석했을 때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다. 그들은 북한과 중국이 토론을 하지 않아 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 여행의 목적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의 정상화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노력에 대해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그들은 유엔의 전략의 목표가 북한과 중국 및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단 사이의 분할임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북한과 달리, 그들은 자유롭게 제한 없는 이동을 허가하길 원했다.⁷⁶

평양 주재의 소련 대사와 체코슬로바키아 대사 모라베츠 (Moravec)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단을 방문함으로써 인해 1964년 11월 19일부터 21일 까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방문은 북한과 남한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과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단과 평양 주재의 대사관과의 협력을 위해서였다. 대사들을 위한 만찬에 새로 선출된 군사령관 박과 중국 대령 왕(Wang)이 초대되어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활동을 높이

⁷⁶ "Poznatky ze zájezdu členů čs.delegace v DKNS do Seoulu 21. a 22. září 1964" (NNSC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들의 했던 1964년 21일 및 22일 여행에 관한 보고서), 4-5 쪽.

평가하고 제국주의에 대항한 싸움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래간만에 두 대사들은 모두 개성 주재의 군사 직원 사무실로 초대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토론을 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고, 대사들은 NNSC의 방문이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관계가 평온해졌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은, 특히 '북경 노선'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⁷⁷

그 직후 박 군사령관은 폴란드 대표단의 부장과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부장 대리를 초대했고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는 최근에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를 두 달에 한번만 하기로 하고, 급한 일일 경우 대표단은 전화 또는 편지로 연락해도 된다고 했다. 박은 이런 행위를 정전협정의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했고 동의하지 않았다. 박은 미국인들이 해상, 공중 및 육로 경계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회의 때 비관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미국인들이 긴장한 다른 이유는 판문점 회의를 남한에서 온 언론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한 박은 위원회가 오랜 기간 동안 회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회의가 형식적인 모임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⁷⁷ "Konzultace se ZÚ Pchongjang a některé otázky k činnosti čs. delegace" (평양 주재의 대리공사 대표들과의 회의 및 체코슬로바키아의 활동과 관련된 질문 보고서), 1-3 쪽.

그러므로 그는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소위 '볼쇼이 (Bolshoi) 소음'이라는 강력한 운동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위반을 할 때 마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조선인민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회의보다 더욱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었다.⁷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의 평온의 이유는 NNSC 의 철수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 직원들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더욱 강화된 협력을 강조했다. 다른 이유는 위에 언급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서울 여행 참석이다. 또한 북한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체코슬로바키아가 남한의 편을 들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보내려고 하는 정전협정의 위반에 대한 편지에 대해 조선인민군과 논의를 했을 때 조선인민군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관계는 더욱 개선되었다. 편지를 보낸 후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대표단의 부장과 아내 및 비서들이 함흥, 원산과 금강산에 초대되어, 여러 공장, 농업 협동 조합, 농장, 문화 센터를 방문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의 자신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 평가했지만, 북한의 정치 노선이 중국의 강한 영향하에 아직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⁷⁸ "Záznam o rozhovoru vedoucího čs. delegace" (체코슬로바키아 측의 위원장과의 인터뷰의 기록), 1-2 쪽.

소련과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이처럼 관계를 개선하게 된 이유는 북한이 강경한 '북경 노선' 때문에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이 고립으로 인해서 북한이 군사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에도 직면해 있었다. 대리 외교부 장관 조는 1965년 6월 19일에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와 개최된 회의 동안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들어내었다. 같은 날에 그들은 개성에서 만찬에 초대를 받았는데, 북한은 양측 대표들 모두에게 감사 연설을 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회의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북한과의 공식적인 관계의 개선의 일부로 간주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극동, 특히 베트남의 전반적인 상황과 미국과 일본간의 체결된 미일군사안보조약이 NNSC의 대표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또한 NNSC 대표국가들의 정전협정 위반은 38선에서와 대표단간의 긴장을 증가시켰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과의 관계의 개선 및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의 개선을 또 높이 평가했다.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공급받고 안전을 보장 받은 것도 높이 평가했다.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는 1967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는 그 즈음부터 북한활동에 대해 비판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북한이 국가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강조하는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전과는 달리, 북한의 선전문은

더욱 강렬해졌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전투 준비를 해야 하고 미국이라는 침략자를 과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의하면, 독립적인 국가 경제를 기반으로 한 군사 산업이 현대 전쟁에 필요한 각종 전투 기술과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 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런 언급이 남한에 대한 무기 수출과 관련된 협상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군사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국방의 보장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 목적을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은 더 이상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며, 통일은 남한으로 무장 진격을 해야 가능하다고 했다.⁷⁹

1960년대 중반의 북한의 강경 노선은 체코슬로바키아의 1968년 8월 소련 침공에 대한 반응이었다. 1968년 8월 20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 운동을 좌절시키지 못한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다.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불행하게도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설명하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측 서고 문서를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박은이 사건을 묘사하며 '프라하의 봄'이 순식간에 전세계적으로 소련에 대한 반대와 항의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소련의 침략은 북한의

⁷⁹ "Vojenská komise pro příměří v I. čtvrtletí 1967" (1967년 초의 군사정전위원회), 10-11쪽.

입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주체'의 관점에서 소련의 침략은 주권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북한은 알렉산더 두브체크 (Alexander Dubček)가 이끄는 과도하게 급진적인 개혁의 운동을 비판할 뿐이었다. 북한은 체코슬로바키아 지도자들의 수정정책이 계급 투쟁의 포기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거부이며, 이로 인해 반 마르크스주의와 반혁명적 수정론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소련의 경제와 군사 원조에 의존했기 때문에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략을 비판하지 못했다. 북한의 소련의 무력 사용에 대한 침묵은 북한이 국가 이익을 위해 타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⁸⁰

한국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NNSC의 대표단과 관련된 자료의 연구는 60년대 말에 종료된다.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최근의 NNSC와 관련된 문서들은 박 장군과의 토론 당시 남한에 새로운 무기의 수입에 대한 항의와 관련된 편지에 대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어려움을 언급한다. 박은 70년대에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의 개선을 다시 언급하지만 정치적 인물의 상호 방문과 공식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만 할 뿐이다.

⁸⁰ Park, 1987, 221 쪽.

제 5 장

50년대~60년대 북한을 위한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

원조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을 위한 비군사적인 원조 또한 제공했다. 1954년 12월 21일자로 제공한 장기 외국채와 무료 원조의 조약이 제공되었다. 이 원조 덕분에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공장, 운산 소재의 공구실과 화물차의 정비소가 건설되었으며 수력발전소의 재건축, 전기 결합과 평양 주재의 케이블실의 건축, 천내리 시멘트공장과 남포 제련종합기업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장기 대출의 지원을 부여 받았다. 1962년에는 산농구리 광산의 경영을 위해 특정 대출 조약에 조인되었다.⁸¹ 기계 공학 분야에서 설명서 또한 제공했다.

체코슬로바키아 의사들은 이미 한국 전쟁 당시부터 북한에서 근무를 했으며, 1958년까지는 청진에서 근무를 했다.⁸² 병원의 사원으로 추정되는 호라그(Horák)에 따르면, 체코슬로바키아가 북한 정부와의 청진시의 건축에 대한 조약에도 조인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에

⁸¹ Pucek, Vladimír. 1975. *Korejská lidově demokratická republika*. Praha : Svoboda, 248 쪽.

⁸² 병원의 본 소재는 온산리였으나, 10월 15일자로 청진으로 이동했다.

대한 의약품과 장비부터 의료진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의료진은 1958년까지 청진에 머무르면서 활동을 했다.

청진 소재의 병원은 외교부 아래 있었지만 정전협정 이후 보건부로 바뀌었다. 즉 군대의 지위에서 민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민간병원으로 바뀌게 된 것은 체코슬로바키아가 북한에게 각기 지역마다의 민간 병원에 대한 지원과 의료진, 의약품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돈과 전문 인력의 지원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졌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국방부는 이를 감당해 낼 수 없었다. 병원의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우선했던 지원은 당연히 김일성 체제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1953년에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최고의 병원 상을 받았다.⁸³

의료지원과 더불어 많은 교육지원도 이루어졌는데,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많은 고아들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지원이 이루어졌고, 여러 연령층의 학생들에게 체코슬로바키아로의 유학 지원 또한 이루어졌다. 남산 소재의 학교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애호를 받았다. 이로서 북한에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적 지식인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⁸³ Pilát, Vladimír, 1994, 「Českoslovenští vojenští lékaři v korejské válce II.」, 『Historie a vojenství』, (3), 96 쪽.

제 6 장

결론

기존 연구들은 NNSC 의 일반적인 문제에 주목했으며, 그 자료들은 서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또 다른 새로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정보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체코공화국 외교부와 군역사 서고에 보관된 문서를 통해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서 처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문서에 접근하지 못했으나, 50 년대 및 60 년대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위원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스위스와 스웨덴과 달리 체코슬로바키아를 북한의 동지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전투 역할의 지지자로 묘사하고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가장 중요한 역할 - 중립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위한 활동의 준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남한, 미국, 스위스와 스웨덴에 대한 전투 임무를 집중적으로 완수하고 있었다. 정전협정의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비난하는 활동가는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이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미국은 북한이 정전협정의 위반했음을 밝히고자 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본 연구는 북한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속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국가들 - 미국, 소련조차도 나름의 외교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전 혹은 소위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안한 평화는 '평화'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는 대표들간에도 발생했다. 그러므로 정전을 감독하는 메커니즘의 본래 의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이런 문제는 사찰 팀의 활동에서도 나타났다. 사찰 팀은 정전협정의 위반 조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투기, 장갑차,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도입을 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교체도 하지 않도록 감독을 했다. 즉, 사찰 팀의 강점은 정전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불신으로 인해 재무장 중지가 불가능했다. 이것은 사찰 팀의 활동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적성국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감독위원회로서의 존재와 활동이 미군과 무기를 한국으로 도입하는 것에 방해된다고 여겼다. 북한에 있었던 중국군 또한 미국인들에게 방해였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으로 무기를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공산주의가 당원들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포한다'라는 정책, 감독소조 활동 정지와 13 항(ㄷ)목의 효력정지를 이용했다. 한국군 감축 후에도 미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무기 현대화를 위해 무기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했다. 무기 현대사업은 병력감축으로 인한 군사력 손실을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 감축정책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반대를 무마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⁸⁴

효과적인 작업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그룹으로 분리된 대표단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의해서도 방해되었다는 것은 옛 체코슬로바키아의 문서에서도 알 수가 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북한을 위한 군사적과 비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강경노선을 공유하는 성실한 동지로 제시되었지만 서고 문서에 따르면 이 우호적인 관계는 표면상의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고 오해와 반대의 의견 또한 숨어 있었다. 이미 50년대 중반에 효과적인 작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발생했다.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는 흔히 고립되고 속박 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때로는 북한이 체코슬로바키아에게 자신의 강경 노선을 요구할 때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도 자신의 권한을 여전히 과시하고 싶었으며 소련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⁸⁴ 박태균, 2003, 51 쪽.

체코슬로바키아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북경 노선'은' 효과적인 협력에 방해가 되었다. '북경 노선'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지속적인 불평 이 소련과의 동맹의 붕괴와 위원회 내의 위협이 될 우려가 분명히 볼 수 있었다.

60 년대 전반 '북경선'으로 인해서 고립된 북한은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려고 했지만 1968 년 양국간의 진실이 없는 관계가 다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각 국가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소련의 함수 관계, 즉 충성도의 유지와 상호 체제 촉진은 앞서 언급한 60 년대의 북한과 중국간의 우호적인 관계 때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간의 긴장에 영향을 미쳤다. 1965 년부터 1968 년까지 북한은 소련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의 비교적 완화로 나타났다. 이 비교적 완화의 이유는 NNSC 의 철수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걱정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의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으로 인한 혼동이었다. 북경이 북한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원조를 주지 않자, 북한은 다시 소련의 지원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중국의 격렬한 대혁명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북한과 중국과의 악화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의 군사 전략을 지원하며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했다. 이 동적인 관계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와 중국과의 냉랭된 관계와 앞서 언급한 1968년에 일어났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상화, 그리고 소련의 침략에 이르기까지 체코슬로바키아와 소련의 관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68년 후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와 NNSC 내의 양국의 관계는 기사 및 몇몇 책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이후 다시 개선되었다고 지적하는데, 이 배경에 관한 연구를 더욱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학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연구로서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I. 1 차 자료

체코공화국 군역사서고 및 외교부서고 자료

- ADO MZV (체코공화국의 외교부의 서고), fond 7. t. o. Korea 1945–54, monitory tisku z Koreje (한국 언론의 기사들의 요약)
- AMZV (체코공화국의 외교부의 서고), 7. odbor, Korea 1945-1954, krabice 2, č.j. 123.216/53
- AMZV, 7. odbor, Korea 1945-1954, krabice 2, č.j. 119.308/53
- Čechoslováci v Koreji, Kronika čs. delegace v DKNS (한국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기록).
- Činnost DKNS, Telegrafická zpráva, 24.5.1954 (1954 년 5 월 24 일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활동에 관한 전신), VHA, MNO 1954, sign. 95/1/2, k. 23
- Činnost DKNS, Telegrafická zpráva, 30.5.1954 (1954 년 5 월 30 일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활동에 관한 전신), VHA, MNO 1954, sign. 95/1/2, k. 23
- Denník Jaroslava Komárka (야로슬라브 코마레그의 일기장), AMZV
- DKNS – Korea, 19.7.1954 (NNSC – 한국, 1954 년 7 월 19 일 보고서), VHA, MNO 1954, sign. 95/1/2, k. 23
- DKNS Korea-Keson, 28.7.1954 (NNSC 북한 – 개성 보고서), VHA, MNO 1954, sign. 95/1/2, k. 23

- DKNS – Korea, 3.8.1954 (NNSC – 한국, 1954 년 8 월 3 일 보고서), VHA, MNO 1954, sign. 95/1/2, k. 23
- Doplněk k informační zprávě o vývoji Dozorčí komise neutrálních států v KOREJI (한국 내의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서, 부록), VHA, MNO 1954, sign. 9/2/1/10, k. 31
- Incident v demilitarizovaném pásmu (비무장지대 내의 사건), VHA, MNO 1962, sign. 31/7/11, k.216
- Konzultace se ZÚ Pchongjang a některé otázky k činnosti čs. delegace (평양 주재의 대리공사 대표들과의 회의 및 체코슬로바키아의 활동과 관련된 질문 보고서), VHA, MNO 1964, sign. 31/7/18, k.105
- Mimořádná zpráva o stycích čs. delegace a delegací polskou a korejsko-čínskými přáteli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과 폴란드, 북한,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주요 문서), VHA, MNO 1954, sign. 9/2/11/10, k. 31
- Poznatky ze zájezdu členů čs.delegace v DKNS do Seoulu 21. a 22. září 1964 (NNSC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들의 했던 1964 년 21 일 및 22 일 여행에 관한 보고서), VHA, MNO 1964, sign. 31/7-5/13
- Rozkaz č. 20 o vedení denníku činnosti Kontrolní skupiny (사찰 팀의 활동 일기장의 유지 방법에 대한 명령 20 호), VHA, MNO 1954, sign. 1/2/2 – 1/2/6/105 Pokrač.
- Současná vojenská situace v KLDR, 1963 (북한 내 현재의 군사 상황), VHA, MNO1963, sign. 31/7/30
- Václav Rydyger- Deník 1954- 1955 (바츨라프 리디게르의 일기장 1954-1955), AMZV

- Vojská komise pro příměří v I. čtvrtletí 1967 (1967 년 초의 군사정전위원회), VHA, MNO 1967, sign. 31/7/7, k. 10
- Vyjádření ke zprávě o činnosti čs. Delegace DKNS v Koreji : Návrh na převzetí péče o československou delegaci v DKNS v Koreji Ministerstvem zahraničních věcí (NNSC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의 주석), VHA, MNO 1954, sign. 9/2/1/10, k. 31
- Vývoj Dozorčí komise neutálních států v letech 1953 až 1957 a postup československé delegace (1953 년부터 1957 년까지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진행 및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 활동의 과정), VHA, MNO 1957, sign. 2/9/43
- Vývoj otázky sjednocení Koreje – souhrnná zpráva (한국 통일의 질문의 개발 – 종합 보고서), VHA, MNO 1962, sign. 31/7/7, k. 89
- Vztahy mezi delegacemi v DKNS– zpráva (NNSC 내의 대표국가들간의 관계 – 보고서), VHA, MNO 1963, sign. 31/7/3, k. 68
- Vztahy mezi delegacemi v DKNS– zpráva (NNSC 내의 대표국가들간의 관계 – 보고서), VHA, MNO 1963, sign. 31/7/15, k. 93
- Vztahy mezi delegacemi v DKNS– zpráva, 31.7.1963 (NNSC 내의 대표국가들간의 관계 – 보고서), VHA, MNO 1963, sign. 31/7/23, k. 21
- Zpráva DKNS, 13.8.1954 (1954 년 8 월 13 일 NNSC 보고서), VHA, MNO 1954, sign. 95/1/2, k. 24
- Zpráva DKNS, 10.8.1954 (1954 년 8 월 10 일 NNSC 보고서), VHA, MNO 1954, sign. 95/1/2, k. 24

- Zpráva o činnosti a přípravách zvláštní skupiny (특수 팀의 활동 및 준비에 관한 보고서), Vojenský historický archiv – VHA, MNO 1953, sign. 95/1, k. 14
- Zpráva o činnosti a přípravách zvláštní skupiny. Příl. 1. (특수 팀의 활동 및 준비에 관한 보고서, 부록 1. 군역사서고), VHA, MNO 1954, sign. 1/2/6/105-138, k. 437.
- Zpráva o činnosti čs. delegace v DKNS, 1.12. 1958 (1958 년 12 월 1 일 NNSC 내의 체코슬로바키아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VHA, MNO 1958, sign. 31/4/21
- Zpráva o činnosti čs. delegace v DKNS za prosinec 1960 (1960 년 12 월 NNSC 내의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VHA, MNO 1961, sign. 1/21/10, k. 456
- Zpráva o činnosti DKNS (28.12.1954) /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1954 년 12 월 28 일), VHA, MNO 1954, sign. 95/1/2/7, k. 447
- Zpráva o činnosti DKNS v Koreji od 1. srpna 1953 do 30. června 1959 (한국 내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19
- Záznam o poradě konané dne 11. ledna 1961 ve štábu KLA v Kesonu (1961 년 1 월 11 일 개성에 있는 조선인민군의 회원에 의해 개최된 회의의 기록), VHA, MNO 1961, sign. 31/7/6, k. 60
- Záznam o rozhovoru vedoucího čs. delegace (체코슬로바키아 측의 위원장과의 인터뷰의 기록), VHA, MNO 1964, sign. 31/7/17, k. 45

신문:

Rudé Právo

II. 2 차 자료

단행본:

-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 Jonsson, Gabriel. 2009. Peace-Keeping in the Korean Peninsula : The Role of Commissions. Seoul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iyosaki, Wayne S. 1976.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 The Politics of Accomodation, 1945-1975. New York : Praeger.
- Park, Jae Kyu – Koh, Byung Chul – Kwak, Tae Hwan. 1987.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 New Perspectives. Seoul : Kyungnam University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 Pucek, Vladimír. 1975. Korejská lidově demokratická republika. Praha : Svoboda.
- The Swiss Delegation to the NNSC 1953-1993 Panmunjom Korea. 1993. Seoul :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

논문:

- 김보영, 2003, 「1960 년대 군사정전위원회와 정전체제」, 『역사와 현실』, 제 50 집, 165-194 쪽.
- 박태균, 2003, 「1950 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제 63 집, 40-56 쪽.
- Korený, Jozef, 1998, 「Zvláštna skupina ČSĽA v Kórei」, 『Apológia』, 6 (3), 24-25 쪽.
- Pilát, Vladimír, 1994, 「Českoslovenští vojenští lékaři v korejské válce II」, 『Historie a vojenství』, (3), 89-106 쪽.
- Pilát, Vladimír, 1998, 「Příprava takzvané Zvláštní skupiny čs. Armády k činnosti nalinii příměří v Koreji」, 『Historie a vojenství』, (6), 58-83 쪽.
- Smetánka, Tomáš, 2010, 「Neutrální Československo : Čtyřicet let v komisi pro dohled nad příměřím v Koreji」, 『Mezinárodní politika』, 34 (6), 9-12 쪽.
- Zhao, Huji, 2009, 「China-North Korea Relations in Post-Cold War Era : Review and Prospect」, 『CHO, Myung Chul – KIM, Ji Yeon.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North Korea』 Seoul : KIEP, 76-95 쪽.

Abstract

The beginnings of Czechoslovakia and North Korean relations reach til the end of 1940s. The countries' cooperation was focused on Czechoslovakia's non-military help to North Korea reflected in various fields, e.g. construction, education, and medical treatment however after the Korean War, non-military aid was accompanied by the military support as well. Czechoslovakia became one of four members of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which triggered the military relation with North Korea. Unlike Sweden and Switzerland, Czechoslovakia entered the commission nor with a peace but with the battle plan against American imperialism. The beginnings of the Czechoslovakia's activity in NNSC confirm this fact by strong support of North Korea's 'strong policy line'. Czechoslovakia's support of North Korean regime was one of the reasons of failure of NNSC's main aim to maintain the neutrality. Czechoslovakia and North Korea can be described as first countries in accusing the other side (Switzerland, Sweden and US) of the armistice violation. However the constant accusing maintained among the other sides as well. Due to NNSC member countries' promotion of their own policy, commission's work and maintaining the armistice or so-called 'negative peace' turned into a very difficult mission. Till the end its' activity in NNSC, Czechoslovakia offered non-military and military aid to North Korea and was presented as a supporter of North's strong policy line however this seemingly friendly relation was disturbed by misunderstandings

and different point of views. North Korea applied it's strong policy and 'Beijing Line' policy to Czechoslovakia, on the other hand Czechoslovakia due to its' strengthening of authority emphasized the dominance of Soviet Union and its' politics.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Czechoslovakia and North Korean relations during the Korean War but the problematics of both countries' relation relating to NNSC is still omitted. This thesis overcomes the limitation of previous research, analyzes the Czechoslovak-North Korean relation related to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presents a new viewpoint connected with this problematics.

Key words: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inspection team, Czechoslovakia, North Korea, Armistice Agreement, armistice violation.

Student Number: 2009-24101